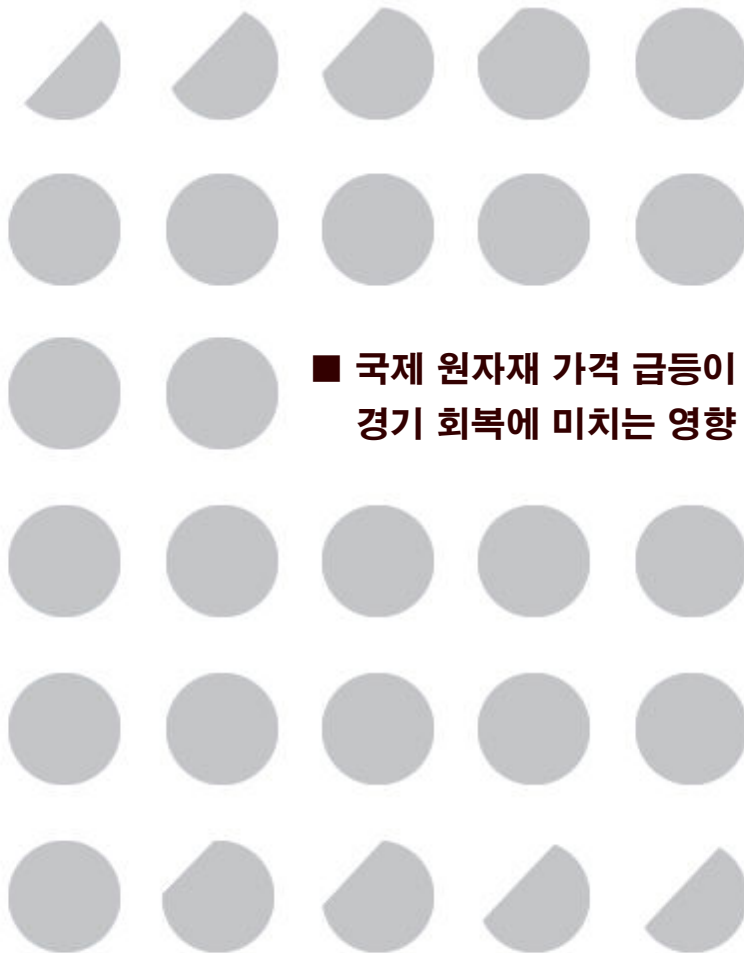




07-18 (통권 249호)

2007.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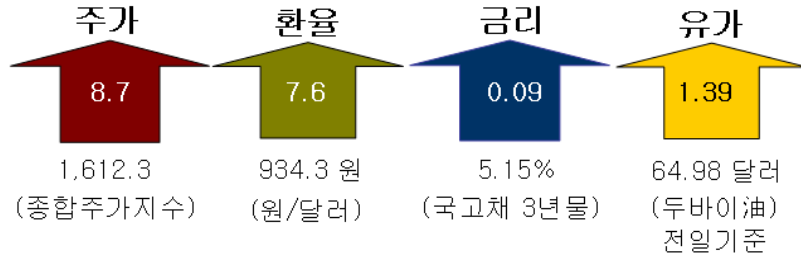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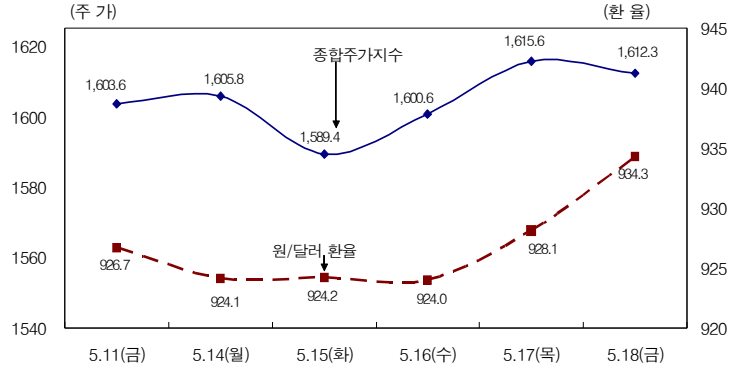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5.11~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1
주간 경제 동향	19
□ 고용 시장 소폭 개선	19
□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 지속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거시경제실 : 이 원 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 개요

한국 경제는 전체 수입 중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도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조이다. 전체 수입에서 화석연료 관련 원자재(원유, 석유제품, LNG)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25.1%에 달하고 있으며, 광물자원 원자재의 비중도 14.2%에 달한다. 전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는 97%, 이중 광물자원의 수입의존도는 86.7%에 이르고 있다.(2005년 기준)

최근 들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금속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경상수지 악화, 물가 상승 압력 제고 및 실질 구매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원유 가격은 2006년 3/4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은 아시아 개도국, 특히 중국과 인도의 산업생산 증가와 국제 금융시장의 투기적 가수요가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동향, 가격 상승원인, 전망을 파악하고,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2007년 수급과 가격 전망,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 파급 영향과 이에 대처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및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3년부터 급등세를 타고 있다. 동, 아연,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금속류 원자재 가격은 지난 2002년에 가격 저점을 형성하고 2003년부터 상승세로 추세 전환하여 2004년 중반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후 200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오다가, 2005년말부터 다시 추세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CRB 종합현물지수는 2005년 11월 294.28에서 2007년 3월 388.77로 32.1%가 상승하였고, CRB 금속현물지수는 2005년 11월 372.1에서 2007년 3월 789.64로 112.2%나 상승했다. 2006년 한해동안 주요 금속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동 83%, 알루미늄 35%, 아연 19%, 니켈 63%에 달하고 있다.

**(가격 급등 원인)**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수요 증가가 1차적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금속물가지수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는 아시아 개도국이 G-7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높은 산업생산 증가가 최근의 가격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철강 수요 증가율은 중국 9.0%, 인도 10.0%로 세계 수요 증가율 8.5%를 주도하였다. 주요 비철 금속의 경우에도 아연을 제외한 대부분 비철금속의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높

은 수요 증가율이 있었다.

**(투기적 가수요)** 글로벌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금리는 2% 미만에서 유지되고, 국제 유동성은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기관들은 원자재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투자 리스크도 분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투기성 가수요는 작년 중반까지 원유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9월 들면서 원유시장을 이탈한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2006년 10월 이후 투기적 수요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였다.

### 3. 2007년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

**(수급 전망)**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2007년 선진국 수요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원자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원자재 수요는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나, 그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자재 수급이 품목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과 알루미늄은 공급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니켈, 아연, 철광석 등은 수요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투기적 가수요 전망)** 투기적 가수요는 2007년에도 지속되어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8월을 기점으로 원유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한 투기성 자금은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한 당분간 원자재 시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8월 이후 원유시장에서 감소한 투기성 자금규모 추정치: 일평균 13.9억달러)

**(가격 전망)** 2007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라늄(59.3%), 니켈(32.6%), 납(16.4%), 주석(14.2%), 철(9.5%), 아연(7.1%) 등 대부분의 금속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동(-10.8%), 알루미늄(-2.8%)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제 투기자금의 원자재 시장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4. 파급 영향 및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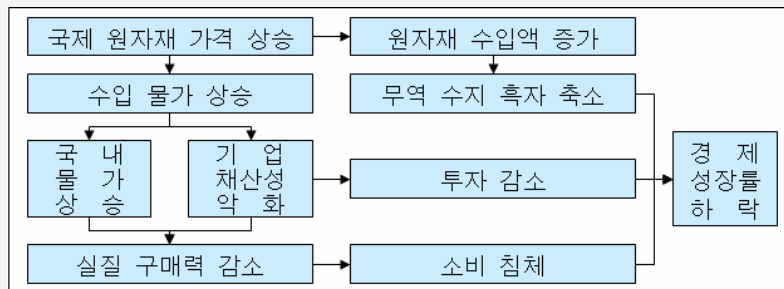
**(파급 영향)**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 무역수지 흑자 축소, 교역조건 악화, 투자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를 유발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23억달러, 경제성장률은 최대 0.029%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경기회복 지연 효과)** 2006년 들어서 올해 3월까지 CRB 금속현물지수는 80%나 상승했다.(2005.12 439.15 → 2007.3 789.64) 이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연간 최대

0.23%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6년 9월 이후 2007년 3월까지 금속류 원자재 가격은 26%나 급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누적상승률을 30~5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07년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저해 정도는 0.09~0.15%p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1~2분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 9월부터 재상승 국면에 돌입한 원자재 가격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 원자재 가격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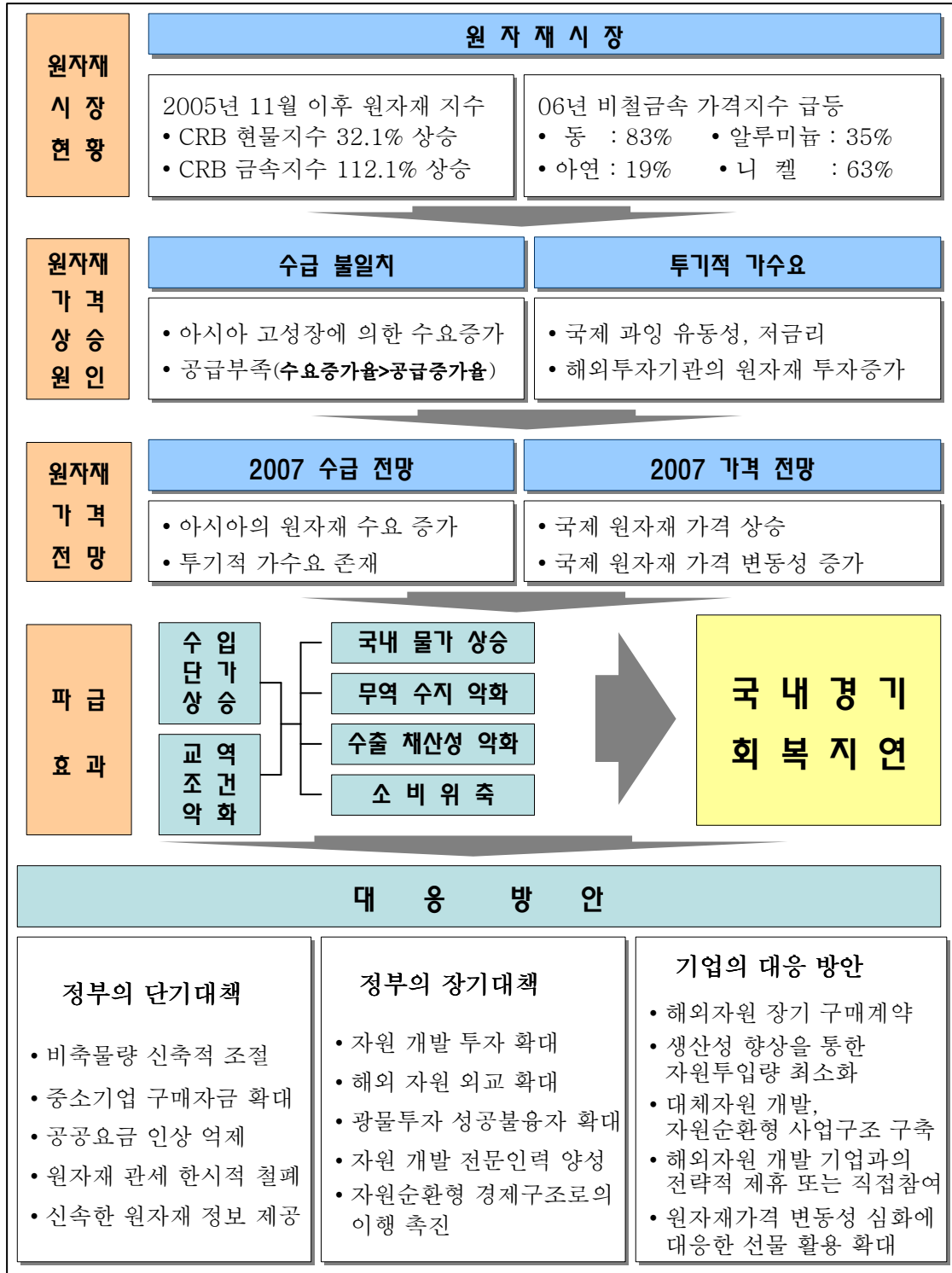


(대응 방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조절 및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 단기 수급 차원에서는 비축물량을 신속적으로 조절하여 원자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원자재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와 자원 외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공불 용자 제도의 재원을 늘리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자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째, 해외자원의 장기 구매계약을 확대하여 원자재 구매선과 구매 단가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자원 투입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대체 자원 개발, 자원순환형 사업구조의 구축으로 자원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 자원개발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나 직접적인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사업상 필수적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여 전문 선물인력의 영입, 전담 부서 설치 등 선물시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



## I. 연구의 개요

- 한국 경제는 전체 수입 중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도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조임
  - 전체 수입에서 화석연료 관련 원자재가(원유, 석유제품, LNG)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25.1%에 달하고 있으며,
  - 광물 자원 원자재의 비중은 14.2%에 달함
  - 전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는 총 97%이며, 이중 광물 자원의 수입의존도는 86.7%를 차지하고 있음(2005년 기준)

< 2006년 주요 원자재의 수입비중 >

(단위 : 백만 달러, %)

	화석연료	원 유	석유제품	L N G	광물자원	금속광물	철강제품	비철금속	전체수입
금 액	77,349	55,865	9,559	11,925	43,799	10,469	19,748	13,612	309,383
비 중	25.1	18.1	3.1	3.9	14.2	3.4	6.4	4.4	100

자료: 산업자원부, 2007년 4월 수출입동향

- 최근 들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금속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경상수지 악화, 물가 상승 압력 제고 및 가계 실질 구매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함
  - 원유는 2006년 3/4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급등의 배경으로는 아시아 개도국, 특히 중국과 인도의 산업생산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동향, 가격 상승원인, 전망을 파악하고,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2007년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살펴보고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의 파급 영향을 추정하며
  - 가격 급등에 대응한 정부와 기업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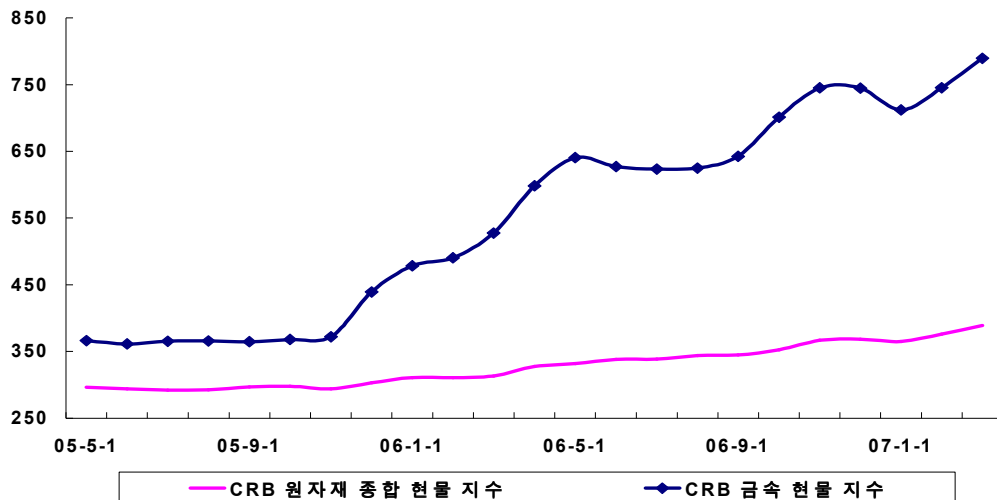
## II.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및 전망

### 1.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 국제 원자재가격은 2005년 11월 이후 금속류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음

- CRB 원자재 종합현물지수는 2005년 11월 294.28에서 2007년 3월 388.77로 32.1% 상승함
- CRB 금속현물지수는 2005년 11월 372.1에서 2007년 3월 789.64로 112.2% 상승함

<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



자료: Korea PDS 국제원자재

주: CRB 종합현물지수는 원유 등을 제외한 22개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이며, CRB 금속지수는 금속류만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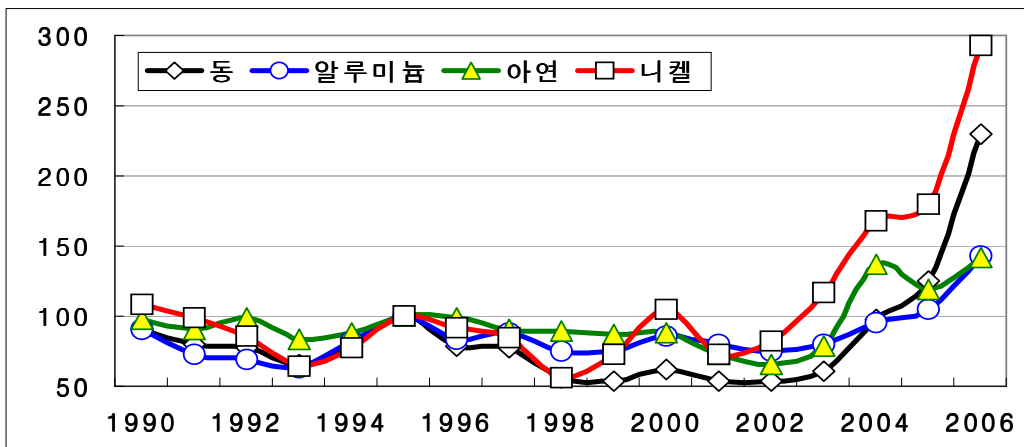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상승 기조를 보이던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은 2006년 급격한 상승 추세를 나타냄

- 1995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던 주요 비철 금속 가격은 2003년부터 상승 기조로 반전됨



- 2006년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급격히 상승함
  - 동 가격지수는 2005년 125.39에서 2006년에는 229.58로 83% 상승함
  - 알루미늄은 2005년 105.29에서 2006년에는 35% 상승한 142.55 기록
  - 아연은 2005년 119.17에서 2006년 141.27로 19% 상승함
  - 니켈은 2005년 179.7에서 63% 상승하여 2006년에는 293.37 기록

< 주요 비철 금속의 가격 지수 1995=100 >



자료 : IMF

## 2.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

### 1) 수급 불일치

○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원자재 수요 증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난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금속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는 아시아 개도국이 G-7선진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률과 금속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아시아 개도국이 0.58로 G-7선진국의 0.4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도 G-7선진국보다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sup>1)</sup>

< 경제성장률과 금속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 >

	1980~1989	1990~2006	1980~2006
G-7선진국	0.45	0.36	0.44
아시아 개도국	0.75	0.64	0.58

자료: IMF

○ 2006년 세계 철강 수요는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세계 철강 수요의 증가는 특히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세계 철강수요는 11억 1,320만톤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함
- 이중 아시아 수요는 6억 280만톤으로 세계 철강수요의 54%를 차지
- 중국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3억 5,620만톤으로 세계 수요의 32% 차지
- 인도는 전년대비 10% 내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국제철강협회)

○ 주요 비철금속은 수요증가율이 공급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에는 아연을 제외한 대부분 비철금속의 수요증가율이 공급증가율을 초과
- 니켈은 수요가 10.1% 증가한데 반하여 공급은 3.3% 증가로 격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알루미늄, 철광석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소폭 앞섰음

< 2006년 주요 비철금속 및 철광석의 수요 및 공급 증가율 >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광석
수요	4.3%	6.9%	3.0%	10.1%	15.0%
공급	3.3%	6.0%	4.1%	3.3%	14.6%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ME Mineral Economics

- 세계 비철금속의 수요 증가는 아시아 지역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1) 199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률의 상관관계는 G-7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남(Asian Developing Outlook 2006 Update, ADB)

2) 국제철강협회(IISI: International Iron and Steel Institute)

-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한 증가 추세임
- 아시아의 주요 비철 금속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철광석 28.6%, 알루미늄 20% 등 원자재 수요 증가 주도
  - 이에 따라, 2006년 아시아의 비철 금속의 수요는 각각 세계 수요의 4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중국 단독으로 18~51%를 사용하고 있음<sup>3)</sup>

< 지역별 비철금속 및 철광석 수요 증가율 >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광석
2005	세 계	-1.3%	5.2%	-0.2%	1.5%	9.8%
	아시아	2.9%	7.8%	6.8%	5.0%	17.7%
	중 국	9.3%	15.0%	12.9%	39.3%	27.9%
2006	세 계	4.3%	6.9%	3.0%	10.1%	15.0%
	아시아	3.1%	14.4%	5.0%	9.6%	23.2%
	중 국	4.1%	20.0%	7.3%	16.3%	28.6%

< 중국과 아시아의 세계 비철금속 및 철광석 수요 비중 >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광석
아시아	45%	44%	52%	48%	67%
중 국	22%	25%	30%	18%	51%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ME Mineral Economics

- 이와 같은 수요 증가에 따라, 2006년에는 주요 비철금속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음
- 특히 아연의 공급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주요 비철금속의 수요와 공급 >

(단위 : 천 톤, 백만 톤)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광석
수 요	17,209	34,122	10,954	1,388	1,747
공 급	17,004	33,951	10,621	1,329	1,760
공급 부족	-205	-171	-333	-59	13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ME Mineral Economics

3) 중국의 산업생산에서 동, 알루미늄, 납 등을 포함한 기본금속류의 1/4분기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하였고,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제품의 생산은 각각 26.2%와 43.0% 증가함, 중국통계청, China Business News, Interfax China ([www.interfax.cn](http://www.interfax.cn)).

2) 투기적 가수요

- 글로벌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는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2% 미만의 실질금리와 최근 수년간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글로벌 유동성은 원자재 투자와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크게 낮췄음
  -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sup>4)</sup>

<선진국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단위 : 10억 달러, %)

	2003	2004	2005	2006
실질 이자율	0.1%	0.2%	0.6%	1.6%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2,850 (12%)	3,255 (14%)	3,760 (15%)	4,141 (10%)

자료: 한국은행,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07.4.

주: 1) 실질 이자율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의 단기이자율과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한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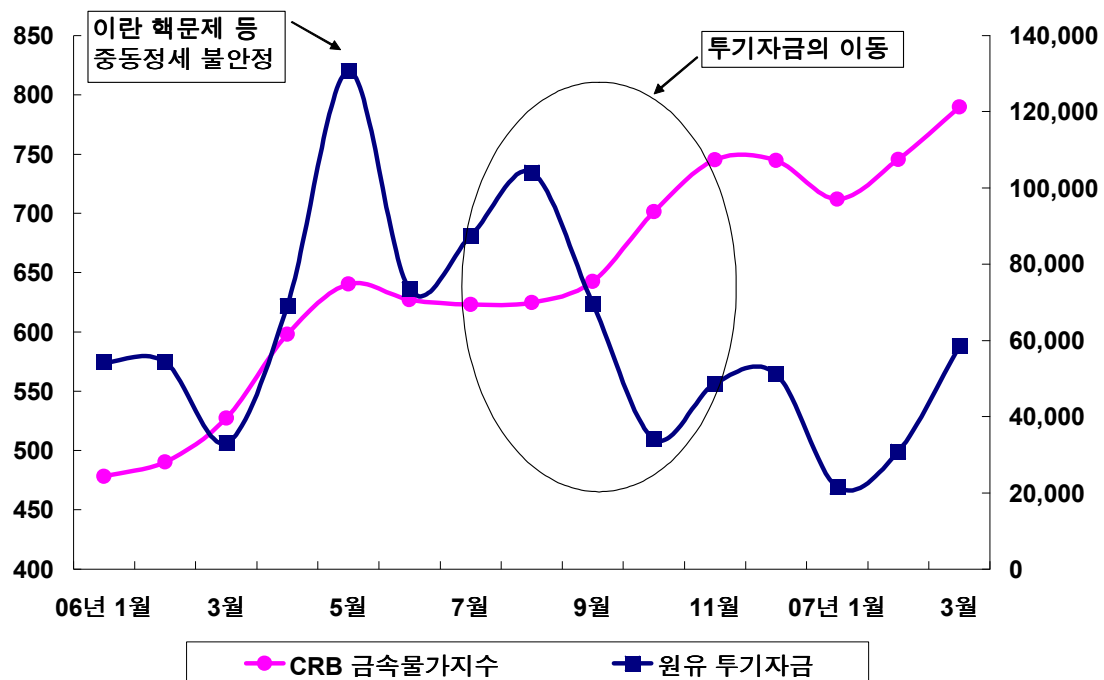
2) 글로벌 유동성의 규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본원통화와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의 합이라고 정의함

- 2006년 8월부터는 주로 원유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던 투기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하여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1~8월의 원유 선물 순매수 포지션의 계약건수는 평균 68,405 계약에서 9월 이후에는 평균 45,219 계약으로 33.9%가 감소함
  - 이와 함께, 금속물가지수는 2006년 10월 이후 급등하여 원유시장의 투기자금이 금속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07년 1월 이후 국제정세 불안정 해소로 인하여 국제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은 CRB 금속물가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냄

4)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주식, 채권, 기타자산 등에 투자된 전 세계의 금융 자산이 140조 달러로 추정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2007. 1. 10)하여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투자운용사인 PIMCO와 Oppenheimer의 상품펀드 자산규모는 각각 2003년말 18억, 4억 달러에서 2006년 6월 말에는 140억 19억 달러로 대폭 확대됨,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7-3호.

- 해외 투자기관은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3~10%를 원자재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보리스 슈레이어 모건스탠리 원자재투자 부문 글로벌 헤드는 외국계 기관들의 원자재 투자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10%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sup>5)</sup>
- 노무라 자산 관리(Nomura Asset Management)<sup>6)</sup>는 일본의 투자신탁 펀드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총자산의 9.7%를 원자재에 투자<sup>7)</sup>
- 2006년 10월 이후 대형 펀드와 투기 세력은 비철금속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sup>8)</sup>

< 국제 원유 선물(NYMEX) 시장의 순매수 포지션과 CRB 금속 물가 지수 >



자료: 한국석유공사, Korea PDS 국제원자재.

5) 모건스탠리 기자간담회, 매일경제, 서울경제, 2007. 4. 24.  
 6) 노무라 자산 관리(Nomura Asset Management)는 일본에서 가장 큰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총투자규모는 10조 1천억 엔에 달함(1월31일 기준), 코리아PDS 물가분석팀. 2007. 3. 7.  
 7) 일본 펀드들 원자재 상품투자 늘린다 - Nomura, 코리아 PDS 물가분석팀 2007. 3. 7.  
 8) 자원 정보 서비스(KOMIS), 국제 원자재 국외동향, Base Metal News

### 3. 2007년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

#### 1) 수급 전망

○ 2007년에는 미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원자재 수요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6년 5.4%에서 둔화되어 4.9%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 부문의 위축이 가시화되어 IMF는 2007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본과 EU 경제는 향후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경제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빠른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선진국의 원자재 수요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 IMF 세계 경제 전망 >

(전년대비, %)

		2005	2006	2007(E)	
경제 성장률	세계	4.9	5.4	4.9	
	선진국	미국	3.2	3.3	2.2
		EU	1.4	2.6	2.3
		일본	1.9	2.2	2.3
		개도국	7.5	7.9	7.5
	중·개도국	중국	10.4	10.7	10.0
		인도	9.2	9.2	8.4
		베트남	8.4	8.0	8.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 4.).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가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도, 베트남은 2007년에도 각각 10.0%, 8.4%, 8.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흥시장의 원자재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철강의 전세계 수요는 5.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아시아 9.2%(중국 13.0%) 중동 9.1% 등 아시아, 중동 수요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sup>9)</sup>
- 비철금속은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알루미늄, 니켈, 아연, 철광석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07년 주요 비철금속 및 철광석의 수급 증가율 전망 >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광석
세계 수요	2.0%	7.7%	4.0%	4.5%	6.3%
중국	5.3%	25.8%	7.4%	15.2%	7.8%
아시아	4.2%	15.7%	5.1%	6.5%	6.5%
세계 공급	3.6%	9.1%	6.6%	8.7%	5.2%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ME Mineral Economics

○ 2007년 원자재 수급은 품목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 알루미늄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알루미늄은 중국의 제련시설 확대의 영향으로 공급이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용 강판 등 제조업의 기초 재료인 니켈의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2006년 니켈 가격이 65% 상승함에 따라 공급 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연의 공급 증가율 또한 수요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역시,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9) IISI Short Range Outlook for Apparent Steel Demand 2007-2008, 국제철강협회(IISI) 2007.3.

< 2007년 주요 비철금속 및 철광석의 수급 전망 >

(단위 : 천 톤, 백만 톤)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광석
수 요(A)	17,559	36,744	11,395	1,450	1,857
공 급(B)	17,615	37,024	11,318	1,445	1,851
B-A	56	280	-77	-5	-6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ME Mineral Economics

주 : -는 공급부족.

○ 투기적 가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여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8월 이후 국제 원유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자금은 원자재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8월 이후 국제 원유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자금은 약 34%에 달함
- NYMEX 원유시장의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의 평균 계약 건수는 2006년 8월 이전 68,405건에서 9월 이후 45,219건으로 감소함
- 9월 이후 일평균 원유 시장의 투기 자금 감소는 13.9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됨<sup>10)</sup>
- 동 투기자금은 향후 안정적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원자재에 대한 위험분산 목적의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sup>11)</sup>

< 원유 선물 시장(NYMEX)의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 변화 >

	2006년 1월~8월	2006년 9~4월	차이	감소율
평 균	68,405	45,219	23,186	-33.9%
최대치	130,735	80,934	49,801	-38.1%
최소치	26,171	15,110	11,061	-42.3%
표준편차	27,432	15,139	12,293	-44.8%

주 : 1) 선물유가와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비상업용 순매수(도) 포지션은 국제 원유시장의 투기자금 규모로 활용됨

2) 단위는 계약 건수이며 1계약은 1,000배럴.

10) 9월 이후 WTI 평균유가는 배럴당 60.19달러이고, 순매수 평균 계약이 23,186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투기자본은 일평균 13.9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

11) 영국의 New Finance Capital사는 2007년 원자재 펀드에 대한 투자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가격 전망

○ 2007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07년에는 철,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라늄은 59.3%, 니켈은 32.6%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동과 알루미늄만 공급 초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국제 투기자금의 국제 원자재 시장 유입으로 인하여 가격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7년 IMF의 금속류 원자재 가격 전망(1995=100) >

	2003	2004	2005	2006	2007(E)	2006년대비 상승률
금속 전체	80.61	109.74	138.73	217.40	229.65	5.63%
동	60.69	97.66	125.39	229.58	204.64	-10.86%
알루미늄	79.38	95.21	105.29	142.55	138.50	-2.84%
철	112.58	133.54	229.03	272.55	298.45	9.50%
주석	78.90	136.85	119.17	141.27	161.36	14.22%
니켈	117.11	168.07	179.70	293.37	389.13	32.64%
아연	80.30	101.64	133.89	316.77	339.45	7.16%
납	81.71	140.15	154.84	204.74	238.36	16.42%
우라늄	96.33	154.71	239.45	408.80	651.54	59.38%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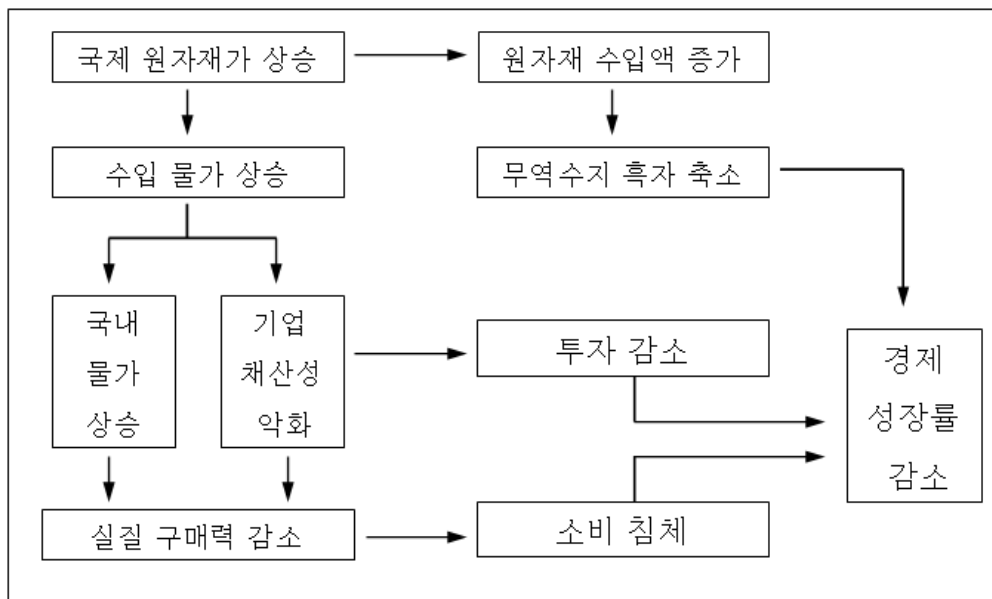
### III. 파급 영향 및 대응 방안

#### 1)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급 영향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 상승, 무역수지 흑자 축소, 교역조건 악화, 투자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를 유발함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입단가의 상승은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고,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폭을 축소시킴
-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제고와 실질 구매력 감소가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짐
-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내수 및 수출 가격에 전액 전이할 수가 없으므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금속광물과 비철금속의 가격 10% 상승은 무역수지 최대 24억달러 감소, 경상수지 최대 23억달러 감소, 경제성장률 0.029%p 감소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 원자재는 금속광물과 비철금속만을 포함(원유, LNG 등 제외)하며, 전년과 동일한 비중의 물량이 수입된다고 가정하여 가격 상승분을 반영(특히 가격 상승에 의한 물량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경제성장률 감소분은 원자재 수입 증대에 따른 수출입차 감소분에 해당

< 금속류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급 영향 >

(단위: 백만 달러)

		5% 상승	10% 상승	15% 상승
금속류 원자재	무역수지 감소분	1,204	2,408	3,612
	경상수지 감소분	1,176	2,352	3,528
	경제성장률	-0.014%p	-0.029%p	-0.044%p

- 주: 1) 원자재는 금속광물과 비철금속만을 포함(원유, LNG 제외)  
 2) 국민계정 상 수입비중은 산업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의 수치를 준용  
 3) 각 계정에서 구한 원자재 수입비중으로 원자재 수입액을 구하고 가격 상승분을 계산  
 4) 가격상승에 의한 물량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전체 수입의 14.2%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원유 등 포함시 수입의 39.3% 차지)
-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10%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0.11%p 상승시키는 파급 영향이 있음<sup>12)</sup>
- 이와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은 이미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음<sup>13)</sup>

12) 원자재는 금속광물, 금속제품,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2005. 5

13) 한국은행의 4월 생산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동(18.4%), 나동선(19%), 니켈(11.9%) 등 금속 1차제품의 가격 상승(5.2%)으로 공산품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전기기계 및 장치는 국제 동가격의 상승에 의한 에나멜 동선(14.2%), 통신케이블(13.0%), 전력케이블(10.2%)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4.6% 증가

○ 2005.12 ~ 2007.3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금속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연간 최대 0.23%p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CRB 금속현물지수는 2005년 12월 439.15에서 2007년 3월에는 789.6으로 80% 상승
- 이와 같은 금속류 원자재가의 상승은 원자재가의 상승이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국내 경제성장률을 연간 최대 0.23%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0.029%p × 8)

< CRB 금속 현물 지수 (1967=100) >

2005년			2006년				2007년		
5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366.09	364.68	439.15	527.52	627.15	642.37	744.65	711.97	745.59	789.64

자료: Korea PDS 국제원자재

- 2006년 9월 이후의 금속류 원자재가격 급등은 2007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0.09%p ~ 0.15%p 낮추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 원자재 가격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2분기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2006년 9월부터 급상승한 원자재 가격은 2007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반영되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임
- 2006년 9월 이후 2007년 3월까지 금속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이미 26%나 상승하였으며, 현재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30~50%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음

< 금속류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

2006.9~2007.12 누적 상승률	30%	40%	50%
경제성장률	-0.09%p	-0.12%p	-0.15%p

주: 누적 상승률은 2007.3 ~ 2007.12 상승률을 각 4%, 14%, 24%의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2006.8 ~ 2007.3 상승률 26%에 합산한 결과

## 2) 대응 방안

### ○ 수급 조절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

- 첫째, 원자재 수급에 의한 가격 변동 시나리오를 도입하고 비축물량을 신속적으로 조절하여 원자재 리스크를 최소화
  - 원자재 시장의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증가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재 재고와 비축 물량을 점검하고 확보하여 방출체계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자재 비축을 위한 구매시점과 규모 조절이 필요함
  - 현재 2개월분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계획<sup>14)</sup>을 갖고 있으나 시장가격의 변동과 보유 비용 등을 감안하여 비축물량의 신속적인 조절이 필요함 (예: 최소 비축물량을 2개월치로 정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시 4개월치로 확대 등)
-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
  - 원자재 비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원자재 구매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자원부는 2007년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하여 3,1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2007년 초반 원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의 최대한 억제
  -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부담 최소화 필요
- 넷째, 주요 원자재 수입관세의 한시적 감면 또는 폐지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 감면 또는 폐지(현재 산자부 추진 계획의 조속한 실시)

14) 조달청, 2006년도 재경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07.1

- 단, 정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입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다섯째, 원자재 관련 정보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제공 서비스 제고
  - 국제 상품시장의 전망과 투기자금 등을 반영하여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 원자재 수급, 선물과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과 전망, 투기자금 동향 등 원자재 시장 관련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제공
  -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의 국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기능을 확대 강화

#### ○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

- 첫째,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2006년말 현재 13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장기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말 현재 조사 단계는 55개 사업, 개발 단계는 49개 사업이 진행 중
  - 장기적인 자원의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산의 매입과 매각 또한 장기적인 자원 확보의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함
- 둘째, 자원 부국들과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및 자원 외교 확대
  - 2006년 남아공 등 아프리카 5개국과 자원협력을 위한 외교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과의 에너지 및 자원 외교 확대
  - 북한과의 자원개발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
  - 기타 舊동구권 국가, 남미 국가들과의 적극적 경제협력 추진 및 자원 확보
- 셋째, 해외 광물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성공불 용자<sup>15)</sup> 확대
  - 정부의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비철금속 등 해외 광물자원 개발투자 목적의 성공불 용자 재원으로 사용하여 민간의 개발투자 촉진

15) 성공불 용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가 높은 자원 탐사 사업에 있어 실패할 경우 용자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는 용자제도

- 2002년 이후 시작한 광업진흥공사의 성공불 용자는 실적도 저조하고, 자금 규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2007년 광업진흥공사는 에너지 특별 예산과 자체 자금을 합하여 총 800억원에 불과한 자금 확보)
- 넷째, 자원개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 자원개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관 및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 2007년 1,230억 달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계획 등 향후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 현재 서울대학교의 자원개발 아카데미<sup>16)</sup>에서 학생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물자원 개발에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고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함
- 다섯째, 자원순환형 경제구조의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 자원 효율성 제고
  - 생산 소비 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 활용과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 등
  - 재활용업체의 대형화 및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금융 지원 등 재활용 관련 기술 혁신 및 개발 등

## ○ 기업의 대응방안

- 첫째, 해외자원의 장기 구매계약을 확대하여 원자재 구매선 및 구매 단가의 안정성 확보
  - 10년 이상의 장기 구매계약을 확대하여 원자재 구매선을 안정화하고
  - 원자재 구매 단가를 낮추는 한편, 구매 단가 변동성을 최소화
- 둘째,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자원 투입량을 최소화하는 생산시스템 개발
  - 장기적으로 자원 투입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 개발, 노후 설비의

16) 2006년 9월에 개원한 서울대학교의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단기교육프로그램(OJT)으로 자원 개발 계획 수립에서 최종 판매 단계 까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기획·지질·탐사·시추·개발·생산·운송·판매·협상 등의 교육을 제공함

- 교체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 기타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통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판매 단가 반영 최소화
- 셋째, 대체 자원의 개발, 자원순환형 사업구조의 구축을 통한 자원 효율성 제고
- 기 사용 원자재의 대체 자원 활용도 제고와 신소재 발굴
  - 자원순환형 사업구조 확립을 통한 원자재 수율 제고 등
- 넷째, 기업 차원의 해외 자원 개발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직접 참여를 통한 해외 자원 확보 노력 지속
-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탐사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기술을 보유한 해외 자원 개발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 또는 기업의 직접적인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상 필수적인 원자재를 안정적 확보
- 다섯째, 가격 변동성 심화에 대응한 선물시장 활용도 제고 전략 추진이 필요함
- 국제 투기 자금의 원자재 시장 유입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물 시장의 활용을 확대
  - 전문 선물 인력의 영입, 전담 부서 설치 등 선물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리스크 관리 필요

이 원 형 연구위원(3669-4031, lwh@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고용 시장 소폭 개선

○ 4월 실업률은 취업자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약 28만 명 늘어난 2,352만 명, 실업자수가 약 3만 명 감소한 82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3.4%를 기록 (전년동월과 전월의 3.5%보다 0.1%p 하락)

- 15~29세 연령층의 청년실업자도 34만 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81만 7,000명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해당됨
- 주당 근로 시간 36시간미만의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반면, 36시간이상 근로자는 1.6% 증가함
- 한편 非경제활동인구중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단념자가 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만 1,000명이 감소함
- 향후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나 그 속도가 빠르지 않고 고용 지표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할 때, 고용 시장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4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4.0(0.9)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2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2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9	17.8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b>2,352</b>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b>3.4</b>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2	19.9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5	-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8	8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5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2.9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의 강세

- **금리** : 4월 신규주택착공건수 및 산업생산의 예상치 상회 등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4.67→4.75%)
- **환율** :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日 1/4분기 GDP 성장률의 예상치 하회 및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동결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간 발표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유로권의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강세로 마감 (\$/€ : 1.3524→1.3495, ¥/\$ : 120.2→121.3)

○ (국내 금융 시장)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증가

- **주가** : 주 초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의 출회로 1,589p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반전하여 1,612p로 마감 (1,603.6→1,612.3)
- **금리** : 단기금융시장의 자금 확보 경쟁으로 CD 금리가 급등하고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며 연중 최고치인 5.15%에서 마감 (국고채 3년 수익률, 5.06→5.15%)
- **환율** : 주초반 역외거래자의 달러화 매도세,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924.1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외환 당국의 공식적인 구두 개입 발언 및 개입성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 (926.7→934.3)

○ (전망)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4/4	1/4	2/4	3/4	4/4	1/4	5.11.	5.18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603.6	<b>1,603.6</b>
	국고채3년(%)	5.08	4.93	4.92	4.57	4.92	4.76	5.06	<b>5.15</b>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26.7	<b>933.0</b>
해외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326	<b>13,477</b>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554	<b>17,499</b>
	미국채10년(%)	4.39	4.85	5.14	4.63	4.70	4.57	4.67	<b>4.75</b>
	일국채10년(%)	1.48	1.78	1.93	1.68	1.69	1.60	1.65	<b>1.63</b>
	달러/유로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524	<b>1.3495</b>
	엔/달러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0.2	<b>121.3</b>
	두바이(\$/배럴)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3.59	<b>64.98</b>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5.17) 기준